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8

보험과 생활위험 관리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먼저 골라 보장과 비용을 관리한다.

학습자용 교재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이 교재를 사용하는 법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습 전 필수 기초'를 먼저 읽는다. 전체 학습은 기초 35분과 8개 Part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60분 핵심 학습도 왜 배우는지·개념의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고 사례 수를 줄여 진행한다.

학습 목표

- 보험이 위험을 이전하는 원리와 자기부담을 설명한다.
- 보장·면책·감액·갱신·해지환급 조건을 찾는다.
- 가계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 감당 가능성을 비교한다.
- 청구와 분쟁에 필요한 진료·계약·설명 기록을 준비한다.

학습 전 필수 기초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보험은 사고가 나면 돈을 받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나눌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냈다고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대상·기간·금액·면책·고지와 청구자료가 맞아야 실제 보호가 작동합니다.

위험·보험료·보장·면책·청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뒤 가입·유지·청구 사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보험은 사고를 막는 상품이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을 여러 가입자가 나누어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 보험료가 비싸다고 필요한 보장이 모두 포함되거나 보험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 대상·보장하지 않는 경우·자기부담금·보험기간을 약관과 설명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사고가 나면 치료와 지출 기록을 보존하고 청구기한과 제출서류를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이 학습이 지키는 것

- 질병·사고 뒤 생활비
-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
-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
- 청구할 권리와 자료
- 중복·공백 없는 보장

생활안전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순서	무엇을 하는가
1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찾습니다.
2	보장 대상·금액·기간·면책을 확인합니다.
3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봅니다.
4	사고가 나면 기록과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각 개념은 뜻만 외우지 않습니다. 생활 예와 반대 예를 대조한 뒤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1 · 위험

사고가 생길 가능성과 생겼을 때의 손실을 함께 말합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 화재의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일만 위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수단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보험을 볼 필요가 없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손실 크기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기초개념 2 · 보험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돈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월 보험료가 가계예산에서 계속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이 넓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보험료는 보장·기간·가입조건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한 달 보험료만 같으면 두 보험은 같은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보장 범위·금액·면책·갱신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 3 · 보장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범위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입원이라는 말만 보지 않고 질병·기간·지급한도를 확인합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모든 치료비가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보장은 지급사유·금액·기간·대기기간·한도를 함께 읽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상품 이름에 암이 있으면 모든 암이 같은 금액으로 보장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약관의 분류와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4 · 면책과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특정 기간·행위·기존 상태가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광고에 보장한다고 쓰였으니 제외 조건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보장과 면책은 한 쌍으로 읽어야 실제 보호범위를 압니다.

확인해 봅니다

보장 항목만 읽으면 가입 판단에 충분한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면책·감액·대기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개념 5 · 보험금 청구

사고가 약관의 지급조건에 해당함을 자료로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진단·치료·사고 기록과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로 말하면 모든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청구는 사고 사실·약관 조건·의료 또는 손해 자료를 연결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보험금이 거절되면 구두 항의만 하면 되나요?

답과 이유: 서면 사유와 적용 약관을 요청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용어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필요한지와 실제 판단 순서를 생활 사례로 익힙니다.

기초학습 1 · 위험을 보험으로 옮긴다는 뜻

보험은 무엇을 해결할까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길 때 약정한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사고 자체를 막거나 모든 손실을 되돌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발생 가능성은 낮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우선 보험으로 대비하고, 작은 손실은 저축이나 자기부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적습니다.
- 2. 이미 공적 보장이나 직장 보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부족한 위험만 보험으로 보완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휴대전화 액정 수리처럼 감당 가능한 손실보다 장기간 치료로 소득이 끊기는 위험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걱정되는 모든 일을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는 보험이 필요 없을까요?

답과 이유: 피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낮은 가능성이라도 대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2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같을까요?

계약자는 계약을 맺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는 사고 위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르면 동의·변경·청구 권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보험에서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보험증권에서 세 역할의 이름을 찾습니다.
- 2. 변경 권한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3. 가족관계 변화 때 수익자와 연락처를 점검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인 계약 처럼 세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보험료를 내면 모든 변경과 보험금 수령 권한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보험수익자와 사고 종류에 따라 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3 · 보장·면책·자기부담금

가입했는데 왜 보험금이 다 나오지 않을까요?

보장은 보험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뜻하고, 면책·지급제한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상품 이름이나 보장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장 개시일, 제외 질병·행위, 감액기간과 갱신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보장하는 사고의 정의를 찾습니다.
- 2.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대기·감액기간을 확인합니다.
- 3. 자기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치료비 100만원이라도 자기부담금과 보장 제외 항목이 있으면 100만원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진단명이 있으면 약관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면 모든 사고에서 1천만원을 받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약관의 지급 사유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4 · 청구·유지·갱신

보험은 가입 뒤 무엇을 관리할까요?

사고가 나면 약관상 사고인지 확인하고 진단·치료·지출 자료를 갖춰 청구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와 조건이 바뀔 수 있고, 납입 중단이나 해지에는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사고 일시와 치료·지출 원본을 보관합니다.
- 2. 보험회사에 청구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3. 갱신·납입·해지 전 보장 공백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즉시 해지하기보다 중복 보장, 감액·납입조정 가능성과 새 보험의 대기기간을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 보험금 청구가 번거로우면 언제든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새 보험에 가입한 날 기존 보험을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답과 이유: 보장 개시와 면책·대기기간을 확인해 공백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교재가 먼저 보여 주는 시범풀이

싸지만 필요한 보장이 빠진 보험

월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을 찾았지만 자주 걱정하는 위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결정: 가격보다 보호할 위험을 먼저 정합니다.
2. 정보: 지급사유·한도·면책·보험료를 같은 표에 적습니다.
3. 위험: 보험이 있어도 필요한 사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행동: 감당 가능한 보험료 안에서 핵심 공백을 확인합니다.
5. 기록: 상품설명서와 비교 이유를 남깁니다.

보험료가 싸다는 사실과 내 생활위험을 보호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초 이해확인

1. 가능성이 낮으면 보험을 볼 필요가 없나요?

확인: 아닙니다. 손실 크기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2. 한 달 보험료만 같으면 두 보험은 같은가요?

확인: 아닙니다. 보장 범위·금액·면책·갱신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상품 이름에 암이 있으면 모든 암이 같은 금액으로 보장되나요?

확인: 아닙니다. 약관의 분류와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장 항목만 읽으면 가입 판단에 충분한가요?

확인: 아닙니다. 면책·감액·대기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5. 보험금이 거절되면 구두 항의만 하면 되나요?

확인: 서면 사유와 적용 약관을 요청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6.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는 보험이 필요 없을까요?

확인: 피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낮은 가능성이라도 대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나요?

확인: 아닙니다. 보험수익자와 사고 종류에 따라 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면 모든 사고에서 1천만원을 받나요?

확인: 아닙니다. 약관의 지급 사유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새 보험에 가입한 날 기존 보험을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확인: 보장 개시와 면책·대기기간을 확인해 공백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9개 질문의 뜻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Part 1로 이동합니다. 어렵다면 해당 기초개념을 다시 읽고, EDU-00 공통 기초과정을 먼저 학습합니다.

PART 1 · EDU-08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기초개념을 배운 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다·연습이 필요하다'로 표시한다.

- ☐ 나는 보장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나는 '감액'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 ☐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 ☐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 ☐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 ☐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 ☐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0~2개: Part 3과 4부터 천천히 읽는다. 3~5개: 사례에서 결정 이유를 말한다. 6~8개: 가족·동료와 확인 규칙을 공유한다.

PART 2 · EDU-08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먼저 골라 보장과 비용을 관리한다.

안전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금융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정보의 비대칭, 기록의 부재,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 때문에 커진다. 따라서 이 모듈은 '알기→비교하기→행동하기→기록하기'의 순서를 반복한다.

이 모듈의 핵심 관점

- 보험은 모든 손해를 없애는 저축이 아니라 큰 위험을 나누는 계약이다.
- 상품 이름보다 누구·무엇·언제·얼마나·어떤 경우 제외되는지를 본다.
- 중복 가입이 보상을 두 배로 만들지 않는 보장도 있다.
- 보험료가 필수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침해하면 계약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PART 3 · EDU-08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용어	생활 속 뜻	확인 행동
보장	약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급여.	내 계약·거래에서 '보장'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보험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돈.	내 계약·거래에서 '보험료'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면책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사유.	내 계약·거래에서 '면책'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감액	일정 조건에서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	내 계약·거래에서 '감액'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갱신	정한 주기마다 조건·보험료가 바뀔 수 있는 계약 구조.	내 계약·거래에서 '갱신'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자기부담금	사고비용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몫.	내 계약·거래에서 '자기부담금'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해지환급금	중도 해지 때 계약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내 계약·거래에서 '해지환급금'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고지의무	계약 체결 때 질문받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내 계약·거래에서 '고지의무'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핵심 사실

[확정 사실] 보험 가입 때 보장내용·보험료·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

확인할 조건: 상품과 가입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설명 항목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토일 2026-08-22

[조건 확인] 보험 청약철회는 상품·가입 방식·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

확인할 조건: 청약서·증권과 최신 공식 안내에서 기산일과 방법을 확인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 검토일 2026-08-22

[오인 방지] 실손형 보장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여러 계약이 있다고 같은 손해가 단순히 배수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확인할 조건: 정액형·실손형 여부와 약관을 구분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 검토일 2026-08-22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직후에는 청약철회·보장개시·면책을 함께 봅니다

철회 가능 기간과 보장 시작 시점, 보험금이 제한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 않을 것: 보험료가 출금됐다는 이유로 모든 보장이 시작됐거나 모든 사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청약서·증권·약관에서 철회 기한일, 보장개시일, 대기기간, 면책·감액 조건을 찾습니다.

지금 할 일: 설명과 서류가 다르면 즉시 보험회사 공식 창구에 서면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권리 · 검토 2026-08-24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53>

실손·간병·장기요양은 서로 대신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의료비, 간병비, 장기요양 서비스는 지급 기준과 자기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 않을 것: 보험 이름만 보고 공적 장기요양과 민간보험이 같은 비용을 모두 보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공적 급여·비급여, 민간보험 지급조건, 대기·면책, 가족이 부담할 시간과 비용을 구분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급여 안내와 내 보험 약관을 나란히 놓고 빈틈을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검토 2026-08-24

<https://www.longtermcare.or.kr/>

구조를 읽는 네 질문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맡기는가?
- 언제 조건이 바뀌거나 의무가 생기는가?
- 손실이 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록과 기한이 필요한가?

PART 4 · EDU-08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단계 비교 카드

1.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2. 기존 보장의 대상·한도·기간·면책·갱신을 표로 만든다.
3. 월 보험료가 소득감소 때도 유지되는지 시험한다.
4. 가입 전 질문과 답변, 설명서, 녹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 사고 후에는 통지기한·필요서류·접수번호·답변을 기록한다.

숫자 하나가 정답이 아니다. 목적·시점·총비용·최악의 결과·권리·증거가 함께 맞아야 한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법

선택한 안만 적지 말고 제외한 안과 그 이유도 적는다. 나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확인 시점	보인 정보	선택·제외 이유	다음 확인
결정 전	공식 설명·계약 조건	비용·위험·권리 비교	기준일·기한
결정 직후	거래·서명 결과	예상과 실제 차이	철회·변경 가능성
정기 점검	잔액·청구·공시 변화	계속·조정·종료	다음 점검일

PART 5 · EDU-08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CASE 01 · 보험료가 버겁다

소득이 줄어 모든 보험을 해지하려 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 ☐ B.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
- ☐ C.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

권장 선택: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판단의 갈림길: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안전한 선택
B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2 · 실손 중복

여러 계약이면 실제 의료비보다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 ☐ B.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
- ☐ C. 설계사 말만 믿는다.

권장 선택: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판단의 갈림길: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안전한 선택
B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설계사 말만 믿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3 · 갱신 보험료

첫 보험료만 보고 장기 계약을 결정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 ☐ B.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
- ☐ C.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권장 선택: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판단의 갈림길: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안전한 선택
B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4 · 고지 누락

과거 진료를 말하면 가입이 안 될까 걱정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 ☐ B.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
- ☐ C.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

권장 선택: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판단의 갈림길: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안전한 선택
B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5 · 청구 기록 부족

전화로만 안내받아 거절 사유를 모른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
- ☐ B. 포기한다.
- ☐ C.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권장 선택: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

판단의 갈림길: 사실·약관·답변을 문서로 모은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	안전한 선택
B	포기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PART 6 · EDU-08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가입 전: 위험 우선순위와 기존 보장을 먼저 확인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2. 유지 중: 연 1회 보험료·수익자·주소·갱신·중복을 점검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3. 사고 시: 안전·치료 후 통지하고 사실과 비용 증거를 모은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4. 분쟁 시: 서면 사유를 받아 내부 민원, 금융감독원 상담 순으로 진행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활동지 4종 활용

활동지	기록할 내용
가구 위험지도	위험 · 발생 시 손실 · 스스로 부담 · 보험 필요
보험계약 한눈에	보장 · 면책·감액 · 기간·갱신 · 보험료
보험료 감당표	현재 · 소득감소 · 우선 유지 · 조정 문의
보험금 청구 준비	사고 사실 · 진료·비용 · 약관 · 접수·답변

PART 7 · EDU-08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갖출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내가 확인할 권리

-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받고 설명받을 권리
- 청약철회 등 계약상 권리를 확인할 권리
-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와 근거를 요청할 권리
-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할 권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권리

권리를 쓰기 위한 다섯 칸

사실	쟁점	증거	요구	기한
누가·언제·무엇을	무엇이 다름	계약·거래·연락	구체적 답변·조치	근거와 확인일

도움 요청 문장

‘저는 ○월 ○일 ○○ 계약·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사실은 ○○이고, 가진 증거는 ○○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조치는 ○○입니다. 적용 기한과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식 확인처

기관	확인 내용	주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보험소비자 정보	https://www.knia.or.kr/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https://www.fss.or.kr/

PART 8 · EDU-08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핵심 복습

- 보험은 모든 손해를 없애는 저축이 아니라 큰 위험을 나누는 계약이다.
- 상품 이름보다 누구·무엇·언제·얼마나·어떤 경우 제외되는지를 본다.
- 중복 가입이 보상을 두 배로 만들지 않는 보장도 있다.
- 보험료가 필수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침해하면 계약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기존 보장의 대상·한도·기간·면책·갱신을 표로 만든다.
- 월 보험료가 소득감소 때도 유지되는지 시험한다.
- 가입 전 질문과 답변, 설명서, 녹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사고 후에는 통지기한·필요서류·접수번호·답변을 기록한다.

사후평가 10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은 별도 평가 세트와 웹 화면에서 확인한다.

1. 보험과 생활위험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 ☐ A.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질병·장해·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
- ☐ B.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
- ☐ C.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
- ☐ D.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 ☐ A. 현재 보이는 금액만
- ☐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 C. 광고 순위와 후기 수
- ☐ D. 친구가 선택한 상품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 ☐ A. 기억해 둔다.
- ☐ B.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
- ☐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 D.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 ☐ A.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
- ☐ B.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
- ☐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 D.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 ☐ A.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
- ☐ B.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
- ☐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 D.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

6. 사례 '보험료가 버겁다'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필수 보장·감액·납부 조정·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 ☐ B.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
- ☐ C.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7. 사례 '실손 중복'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 ☐ B.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
- ☐ C. 설계사 말만 믿는다.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8. 사례 '갱신 보험료'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갱신 주기·변동 가능성·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
- ☐ B.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
- ☐ C.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9. 사례 '고지 누락'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
- ☐ B.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
- ☐ C.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10. 사례 '청구 기록 부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서면 사유·약관 근거·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
- ☐ B. 포기한다.
- ☐ C.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30일 뒤 점검

오늘 바꿀 행동 1개, 확인할 공식 출처 1개, 함께 점검할 사람 1명, 다시 볼 날짜 1개를 적는다.

주차별 실천 기록

주차	확인한 행동·거래	새로 알게 된 사실	다음 주 행동
1주			
2주			
3주			
4주			

부록 A · 내 생활 적용 체크리스트

수업이 끝난 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는 적지 않고 확인 여부와 다음 행동만 표시한다.

점검 질문	확인	다음 행동·날짜
보험은 모든 손해를 없애는 저축이 아니라 큰 위험을 나누는 계약이다.	☐	
상품 이름보다 누구·무엇·언제·얼마나·어떤 경우 제외되는지를 본다.	☐	
중복 가입이 보상을 두 배로 만들지 않는 보장도 있다.	☐	
보험료가 필수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침해하면 계약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	
가입 전: 위험 우선순위와 기존 보장을 먼저 확인한다.	☐	
유지 중: 연 1회 보험료·수익자·주소·갱신·중복을 점검한다.	☐	
사고 시: 안전·치료 후 통지하고 사실과 비용 증거를 모은다.	☐	
분쟁 시: 서면 사유를 받아 내부 민원, 금융감독원 상담 순으로 진행한다.	☐	

한 달 회고

- ☐ 내가 멈춘 위험한 행동: _____
- ☐ 공식 정보로 바꿔 확인한 판단: _____
- ☐ 가족·동료와 새로 정한 규칙: _____

부록 B · 공식정보 확인·변경 기록

한도·요건·기한·기관 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적용 날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적는다.

기관	확인할 내용	확인 날짜·문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손해보험협회	보험소비자 정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변경 이력

날짜	바뀐 내용	영향 받는 Part·활동지	확인자

내용 기준 2026-08-24 ·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긴급한 제도 변경은 정기점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영한다.